

## 조선후기 범죄사회사 자료 '추안급국안' 90권 완역

전주대, 조선왕조실록 국역사업의 뒤를 잇는 쾌거 이뤄

대학경제 김동홍 기자 | 입력 : 2014.09.26 12:42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2004년 번역을 시작한 이후 10년만에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완역하여 '국역 추안급국안' 전 90권을 간행하였다.

이 번역사업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의 지원 과제로 수행된 것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번역과제 중에서는 가장 방대한 성과물이다.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은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17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심문한 기록이다. 심문 대상자는 신분상으로 양반에서 노비까지, 직역으로 관료와 상인 및 농민과 궁녀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국역 추안급국안의 번역 분량은 원문 글자수 약 6,726,000자로 영인본 30권 분량이다. 번역문은 200자 원고지 15만 매의 규모로, 고전번역의 단일 사업으로는 최고의 결과물이다. 번역에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사상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번역은 변주승(연구책임자, 전주대), 김우철(한중대), 조윤선(한국고전번역원), 이상식(고려대), 이향배(충남대), 이선아(전북대), 허부문(서강대), 오항녕(전주대), 서종태(전주대), 문용식(전주대) 등 전문 번역자와 전주대 사학과 대학원의 연구보조원 등 약 3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3년 동안의 집중 번역과 7년에 걸친 윤문 및 교열 과정을 거쳐 10년 만에 총 90권으로 출간되었다.

변주승 전주대 고전학연구소장은 "추안급국안의 번역으로 조선시대사 연구가 한층 활성화 될 것이다. 그동안 한문의 장벽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했던 사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전근대 민중생활사, 법제사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의 역사서술이 풍부해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국가 고전번역을 주관하는 한국고전번역원과 협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전번역 호남권 유일의 준대형 거점연구소로 지정돼 호남지역의 문집을 번역 중에 있으며, 이미 '국역 여지도서'(50권), '존재집'(6권), '문곡집'(4권) 등을 간행한 바 있다. 또한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연계하여 고전국역 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고전번역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주대학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92612287460814&type=1>